

# 깃발 올린 신당... 脫盧 새판짜기

## ■ 김근태-정동영 신당 합의

### 정계개편 논의 신당과 판정승 당사수와 단일대오 균열 조짐

예상했던 대로 국회 종료와 함께 여당발 정치권 새판짜기가 급류를 타기 시작했다.

27일 의원 워크숍에서 2.14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합'을 추진한다는 큰 틀의 합의가 나왔고, 곧바로 28일에는 당내 양대 주주격인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이를 '추진'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에 따라 신당과 사수파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운 여당의 정계개편 논의는 사실상 신당파의 '판정승'으로 귀결되면서 범여권 통합논의는 움직일 수 없는 대세로 빠르게 자리잡는 분위기이다.

◇ 손잡은 GT-DY, 대통령과 선국기=여당내 계파를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는 김 의장과 정 전의장이 공개리에 회동, '원칙있는 국민의 신당'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사실상 당의 로드맵을 확정짓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확인된 당내 여론의 흐름을 양대 주주가 공식 확인하고 행동을 같이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의원 세력분포상 당내 최대계파인 정동영계는 50~60명, 김근태계는 30~40명으로 전체(139명)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립지대에 위치했던 중진그룹의 일부도 이번 회동을 계기로 통합신당론 쪽으로 이동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의장은 김 의장과 회동하기 전 김원기 전 국회의장, 조세형 상임고문, 문희상 전정세 의원과 연례 접촉, 일정한 공감대를 얻어냈다 후문이다.

대선주자들이기도 한 두 사람의 회동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갖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긴급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고 있다. 노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고건 전 총리를 비판한 이면에는 김의장과 정 전의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회동은 향후 통합논의가 노대통령 지지세력을 배제한 채 반 한나라당 세력을 규합하는 쪽으로 흐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 결별수순 시동 걸리나=이처럼 당내 논의의 흐름이 통합신당론 쪽으로 급격한 '출렁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친 노진영을 주축으로 한 당 사수파의 반발과 저항도 만만치

않다. 신당과는 의원 워크숍의 합의 분위기를 이어가며 2.14 전당대회 때까지 대세를 굳혀나가기 위한 분위기이지만 사수파의 상당수는 여전히 불복 태세를 껴안고 있고, 심지어는 "이런 상태로라면 갈라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강경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혁신모임'에 속한 김형주 의원은 "다같이 가야 한다는 대

의에도 불구하고 정계개편이 논의된다면 정계개편을 이념적으로 정리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전날 워크숍을 계기로 사수파의 기록에 일정 정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과의 '소 통합'을 넘어서는 큰 틀의 대통합에는 일단 동의하는 쪽으로 미세조정이 이뤄진 듯 하다.

그러나 막상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론을 놓고는 양쪽의 간극을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노 대통령과의 관계설정 문제가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계파간의 '정치적 합의'를 추진할 전당대회 준비위원 구성과 논의를 놓고도 양 진영간 충돌음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당 사수파는 기초당원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 문제와 맞물려 2월 전대를 3월 전대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내년 2월 전당대회

### 집단지도체제 도입 가능성 높아

한화갑 대표 이후의 당 지도체제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빚었던 민주당이 전당대회 개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내년 2월께 전당대회를 치를 예정이며 현재 상황으로는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28일 민주당 배기운 사무총장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1월 초 중앙위원회 의를 소집,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통합수입기구 구성 등을 논의한다.

배 총장은 "정확한 중앙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1월 10일을 전후해 소집될 것"이라며 "중앙위원회에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고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전당대회가 개최되더라도 치열한 당권 경쟁이 펼쳐지는 게 어려울 것이며 내부적인 합의 등을 토대로 지도체제 문제 등도 가닥이 잡힐 것"이라며 "통합수입기구 구성은 현역의원들과 원내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조기 전당대회 개최 방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비대위를



알렉산더 버시비우 주한 미대사가 28일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간담회를 갖기 위해 손봉숙 의원 등 소속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당 지도부에서 이를 의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조만간 현역의원들의 뜻을 모아 정상 대표에게 비대위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비대위는 급류를 타고 있는 정계개편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를 의면하고 당 지도부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밀어붙인다면 굳이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한민국 새 국새(國璽) 모형 확정

### 민홍규씨 출품작 당선

새로운 국새(國璽) 모형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새 국새의 인문(글자체)과 인뉴(손잡이) 당선작으로 세불(世佛) 민홍규씨의 출품작을 당선작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문의 모형은 가로 99mm, 세로 99mm, 높이 30mm의 크기에 훈민정음체를 기본으로 '대한민국'을 가로쓰기 형태로 새겨 만들어졌다.

봉황의 모습이 들어간 인뉴의 모형은 글자가 들어가는 인면은 가로 99mm, 세로 99mm로, 높이는 69mm 이내에서 제작됐으며 국새의 전체 색상은 황금색이다.

행자부는 "민씨의 작품은 조형미가 뛰어나며 인획의 기운과 생동감을 통해 국운 융성을 잘 표현했다"면서 "세련된 미적 감각과 세련된 조각기법으로 인뉴



국새 제작을 위한 모형 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씨의 국새 모형. /연합뉴스

부분의 봉황을 제작해 국새의 품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 1~2월중 국새제작단 및 감리단을 구성하고 2008년 1월까지 국새를 제작한 뒤 같은 해 2월부터 새 국새를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인턴보좌관제 도입 힘들 듯

### 행자부, 타지자체 확산 우려 강력 제동

광주시의회와 서울, 경기 등 3개 지방의회의 유급인턴보좌관제 추진과 관련, 정부가 대법원 제소 방침을 밝히는 등 원천 차단 나서면서 광주시의회는 유급보좌관 문제가 도마 위에 다시 올랐다.

정부가 해당 지자체에 제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지자체가 의회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대법원에 지방의회를 제소할 방침을 천명하는 등 이번 사태가 타 지자체로 확대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유급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반면, 광주시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예산안을 증액처리하는 바람에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는 등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태다.

광주시는 당초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와 의회의 예산 증액안에 지사가 동의한 경기도와 달리 유급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을 집행부와 동시에 의회 예산 증액안에 시장이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일 시보와 시홈페이지를 통해 유급인턴보좌관제 관련 부동의 입장과 관련 예산 집행유보를 결정한 내용을 고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시장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처리한 경우 이송된 예산의 해당 항목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법적처의 의견을 받았다"면서 제

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행자부는 28일 법령을 위반해 유급인턴보좌관 관련 예산안을 의결한 3개 지방의회의 관련 예산을 없애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제의 요구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3개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제의 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행자부 장관이 직접 예산안의 위법성을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권법으로 도입하고 있는 인턴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급보좌관제가 사실상 양성화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염려로 분석된다.

특히 지자체가 제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자부 직접 감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감사 ▲예산의 편법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결과에 따라 법령을 위반해 지출한 금액내에서 과부세를 감면하거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150조)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진다고 판단되면 주무장관(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제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Love is the best Medicine

사람이 자연을 사랑한다지만... 오히려 자연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사람에게게 무관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성스레 쌓아올린 돌탑 앞에 작은 소원을 말해봅니다.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진 않지만 **소원을 비는 정성만으로도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국제약품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안과 일반의약품**

- **키랄라 점안액**  
안과 전문의 권민태  
안과 전문의 권민태  
안과 전문의 권민태
- **신도솔 류점안액**  
안과 전문의 권민태  
안과 전문의 권민태  
안과 전문의 권민태
- **비어볼 점안액**  
안과 전문의 권민태  
안과 전문의 권민태  
안과 전문의 권민태

광고심의의뢰 : 878-0100

국제약품의 기본이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열매의 씨앗이, 소나무가, 돌은, 돌탑을 이루고 있습니다.